

장흥군, 유치면서 하반기 '군민과의 대화' 시작

지역민과 마을좌담회 개최, 소통 통해 지역 현안 해결

김성 군수 "군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곧 행정의 방향"

장흥군은 11월 5일 유치면을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군민과의 대화(마을좌담회)'를 본격 추진했다.

이번 좌담회는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5일은 운월1·2구, 봉덕2구 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각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해 도로·상수도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농업용수 확보 등 생활밀착형 민원과 지역 현안을 군수에게 직접 건의했다.

김성 군수는 주민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경청하며,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관계 부서와 함께 조치 방향을 논의했다.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는 검토를 거쳐 내년도 군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치면은 천년 고찰 보림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의 고장으로, 남산·봉덕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예로부터 학문과 예절이 융성한 지역이다.

장흥읍과 청정 농업단지가 조화를 이루며,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 쉬는 정남진 대표 농촌마을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 군수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곧 행정의 방향"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의견은 정책으로 신속히 연결해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군민과의 대화를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직능사회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장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 대화는 유치면을 시작으로 6일간 10개 읍면, 총 30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즉시 답변·조치하는 실질적 소통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군 제공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한마당, 10주년 기념행사 열어
'10년의 발자취, 새로운 도약의 출발' 주제 성과 공유와 비전 다짐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4일 월산면 물구십리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일대에서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한마당'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10년의 발자취, 새로운 도약의 출발'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마을공동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온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수북삼인산농악대와 우화등산 팀의 공연으로 문을 연 행사에는 정철원 담양군수와 담양군의회 의장, 전라남도의회 도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10년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1부에서는 10주년 기념영상 상영과 공로패 시상, 공동체상 수여, 비전선포식이 이어졌다. 이어 풀뿌리밴드, 무정라인댄스, 부동새마을회, 청춘마을자치회, 북정리새마을회 등이 참여한 어울림 공연이 열려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찬 후 진행된 2부 명랑운동회에서는 각 공동체가 팀을 이뤄 협동과 화합의 의미를 나누며 한마당의 열기를 이어갔다.

양순에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장은 "지난 10년은 담양의 마을공동체가 뿌리내리고 성장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 사업」에 '금일 관문 권역(일정, 화전항)'이 선정되어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 경제 도약형, 어촌 회복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며, 정주 여건 개선과 안전 기반 시설을 강화하고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년간 총 200개의 어촌·어항을 지원한다.

완도군, 어촌 신활력 사업 선정 100억 확보

사업 대상지 금일 관문 권역은 어촌 회복형으로 4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일정항과 화전항 일대에 취약한 생활·안전 기반 시설을 개선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 방파제 연장, 어민 작업장 조성 등 어항 시설 정비를 통해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돕고, 복지회관·경

모당 시설 개선, 어린이 놀이 시설·문화 복지 거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26년부터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금일읍 일정한 일대는 어촌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한편 군은 지난 '23년 완도 망남항, '25년 신지 동고항에 이어 세 번째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공모 선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맺은 결실이다"면서 "어촌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영암군, 외국인 밀집지역 민·관·경 합동 야간 순찰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4일 삼호읍 외국인 밀집지역과 주거단지 일대에서 방범연합대와 상호방범대 대원, 영암경찰서 경찰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치안 강화, 범죄 예방 민·관·경 합동 야간 순찰을 실시했다.

도보 및 차량 이동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야간 순찰에서는, 골목길 조명·폐가·방치차량 등 안전 취약요소를 점검했고, 선주민과 이주민에게 생활 방법 수칙과 신고요령 등도 안내했다.

박영하 영암군 자치행정과장은 "영암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민·관·경 협력을 강화하고, 치안 취약 요소 개선에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무안군, 외국인 유학생 지역문화 탐방 및 기업 견학 실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5일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지역문화 탐방 및 기업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유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 산업 구조 이해할 수 있게 마련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황토갯벌랜드, 밀리터리 테마파크, 식염정, 초의선사 탄생지 등 무안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청계농공단지과 일로농공단지 내 지역 기업 4개사를 방문했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보성군, 꼬막거리 '친절·위생교육 및 주방위생 컨설팅'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4일 보성군가족센터 별교 교육장에서 별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음식점 및 꼬막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친절·위생교육 및 주방 위생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21회 별교꼬막축제(11월 21일 ~ 23일)'를 맞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과 친절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남도 대표 미식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별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내 꼬막 전문 음식점 8개소를 포함한 총 20개 업소가 참여했으며, ▲고객 응대 매너 및 친절 서비스, ▲바가지요금, 불공정 상행위 근절 다짐, ▲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실무형 프로그램이 이뤄졌다. 보성/김윤기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